

하느님의 왕국



[3]

지어진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생기가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살리는 하느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ㄱ.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던 일을 다 하시어서 안식하시고 여섯째 어둠을 이긴 빛이 복을 받아 거룩하신 자가 되시었기 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ㄷ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생기를 받기 전의 사람은 이미 여섯째 날에 지어진 생명이었으므로, 하느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난 그 생명은 여섯째 날 태어난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ㄹ.

짐승의 생명은 오로지 육신을 위하여 제 먹을 것만을 찾아다니는 「기식이 있는 육체」 의 ㅁ 생명이나 일곱째로 난 빛이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태어난 생명은 더는 그 짐승과 같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 지라」 고 사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흠으로 만드신 것은 흠으로 만드신 짐승과 ㅇ 같이 기식(氣息)이 있어서 살아있는 육체이지 흠으로 빛은 모형도 아니고 시체도 아닙니다. 「흠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ㅂ.

이미 지어져서 기식이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생기가 임하신 것이요, 흠으로 만들어진 모형이 산 혼이 된 것도 아니고, 기식이 없는 시체가 산 혼이 된 것도 아닙니다.

ㄱ.창2:7 ㄴ.창2:3 ㄷ.요8:12 ㄹ.창1:27 ㅁ.창2:17 마4:4, 8:22 ㅂ.창6:17, 7:15, 22 ㅅ.창2:7 ㅇ.창2:19 ㅈ.창1:27

「사람이 생령이 된」 것입니다.

생기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임하셔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ㄱ 하느님의 영입니다.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셔서 바람이 불 듯 불려 들어온 ㄴ 그 생기는 성령이심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ㄷ.

하느님의 그 살리시는 영을 사람이 받아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 새 차원의 몸으로 거듭난 생명이었기 더는 하느님의 영만도 아니고 기식이 있는 육신만도 아닙니다.

기식이 있는 육신이 거룩하신 영과 하나로 결합하여서 살아난 생명이어서 사람이 고차원의 존재로 탈바꿈되었던 몸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서에는 생령(生靈)이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영과 혼을 분별치 않고 한 단어로 쓰고 있으나 기실은 영과 혼이 서로 다른 말이고 히브리어 또한 영과 혼이 같은 어휘가 아닙니다.

신이나 영은 물질과는 대조적인 어휘로서 서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나, 그 능력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전능하신 신이 하느님이시고 천자께서도 하느님께서 영이시라고 가르쳐주셨으나 하느님께서 혼이실 수는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에게서 생산된 존재가 산 혼이나 율법을 번역한 자가 그 율법의 낱말을 무시하고 혼을 혼 이외에도 영, 생명, 목숨, 마음, 인생, 성품, 영혼, 중심, 심령 등으로 국역하여 성서 여기저기에 서로 다르게 옮겼습니다.

사람은 본시 원숭이같이 생긴 짐승이 저절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느님의 거룩한 씨를 받아 태어나서 현대의 인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았던 신선이었습니다.

산 혼이 되어서 살았던 아담은 육체를 갖지 아니한 영이 아니라 육체를 초월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삶이었습니다.

ㄱ. 요6:63 고전15:45 고후3:6 ㄴ. 왕상19:11~12 행2:2 ㄷ. 요20:22

영이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존재가 아니나, 그 산 혼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날 죽어서 ㄱ 더는 육신을 초월하지 못하고 거꾸로 육체 속에 묻혀 잠재하게 된 것이고 다시 몸뚱이만 덩그러니 드러나 ㄴ 육신으로 살아가는 생명으로 퇴락하였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어 있기 전, 모든 생물 중에서는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가장 먼저 창조되었고 그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생물이고 그다음에 지상의 생물들입니다 ㄷ.

지상에서 발로써 다니던 들짐승이 창조되었는데, 그 들짐승의 종류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ㄹ 하셨습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들짐승 중 다리가 있는 뱀의 지혜가 우세하였으나, 하느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는 더 이상이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을 지으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느님의 형상과 같도록 인간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기 ㄴ 때문입니다.

모든 짐승과 생물들이 머리를 굽히고 태어났으나 인생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ㄹ 발 아래 땅을 두어서 ㄷ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ㄹ 왕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같이 진보의 방향으로 생물들을 창조하셨으나 그 반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윈은 진화의 논리를 발표하여서 과학의 선구자 노릇을 하였거니와 성서는 도리어 퇴화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지어진 사람이 하느님의 생기를 받아서 산 혼으로 거듭나 하느님의 성산에서 그의 다스리는 일을 하였는데, 그만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저주를 받고 퇴화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육체로 타락한 것입니다 ㄷ.

인간만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고 퇴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보다 더욱 저주받은 종류는 다리가 있는 들짐승이었던 뱀입니다.

ㄱ. 창2:17 겔18:4, 20 ㄴ. 창3:7 창3:19 ㄷ. 창1:20~25 ㄹ. 창3:1 ㄴ. 창1:26~27 ㄷ. 마8:20 눅9:58 ㄷ. 사66:1 마5:35
ㄹ. 창1:26 ㄷ. 창6:3

멸망한 것입니다.

멸종의 화를 입어 다리가 있던 뱀은 없어지고 그 후로 몸을 들지 못하고 배가 땅에 붙어 배로 다니게 되었다고 하셨으니 결국은 하느님의 저주로 가장 간교했던 지능과 다리가 퇴화하여 없어진 ㄱ 것이고 형상이 한 일(一)자 모양이 되어 직립한 사람과 반대 모습이 되었습니다.

적자생존이 아니라 하느님의 복과 저주가 변성이고 ㄴ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지어진 만물과 그 역사를 증명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주께서 인간에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ㄷ.

성서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흠에 묻혀 흠으로 돌아가는 ㄹ 생명에 다시 원시대로 반본(返本)되는 구속(救贖)을 약속하신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짐승이야 그것이 본래가 죽게 지어진 것이어서, 이생을 고달파 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서러워할 기질을 지니지도 않았으나, 인생은 본래가 그렇게 생겼던 것이 아니어서 한이 맺히는 것이요, 본래로 다시 회복되는 ㄴ 것이 구속입니다.

신선이라고 하는 그 선(仙) 자가 사람 인(人)에 메 산(山)입니다. 본래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ㅂ 도원의 동산에서 놀고먹으며 살던 신선이어서 유유자적하여 부러울 것이 없던 삶이었었기 인생이 한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려면 먹어야 하고 먹으려면 수고의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 세상살이가 되었고, 그 세상살이조차도 층층으로 지배를 당해서 바닥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서 허덕이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야 그 슬픔을 누구에게 하 소연 하리오.

ㄱ.창3:14 ㄴ.창1:22, 28 ㄷ.행5:20 요일1:1 ㄹ.창3:19 ㅁ.행3:21 롬8:21 ㅂ.창2:9 ㅅ.마11:28

아무리 누추하고 버림당하고 병든 인생이라도 갓 태어났을 때는 모든 이가 웃는 얼굴로 바라보던 생명이었고 어릴 때는 남들 같은 꿈을 꾸던 인생입니다.

사람이면 죽은 때에는 모든 이가 애도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 본래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인생은 하느님의 성산(聖山)에 ㄱ 거하면서 하느님도 『그를 위해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서 당신께서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 까지 그에게 이끌어 들이셨고 ㄴ 그를 위하여 지으신 그의 배필까지 이끌어 오시어서 그는 그 모든 것의 이름을 지어 붙이는 왕이었습니다 ㄷ.

만물을 지으신 수고는 하느님께서 하시고 정작 지으신 각종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어서 아담은 그 생물들을 분별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저 아담을 위하여 수고만 하시는 임이시고, 아담은 하느님께서 수고하신 보람을 독차지하여서 하느님의 성산 아래에 있는 지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ㄹ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산에서 아담은 자기의 배필을 보고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取)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ㅁ 하였습니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니, 남자는 여자의 골육이 될 수 없으나 여자는 남자의 골육이라 했던 것입니다.

남자에 속한 남자의 골육이로되 이(여자)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어서 안의 몸입니다. 엄연히 내외지간으로 구별되어서 아내라고 하는 그 안 사람은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안에서 바깥 남자 편을 위하여 그 남편을 돕는 내조자입니다.

ㄱ.겔28:14 ㄴ.창2:18~19 ㄷ.겔28:2 ㄹ.창1:28 겔28:13~14 ㅁ.창2:23

남자가 있는 연후 그 지아비에게서 취하여 난 나중 몸인즉 여자라고 한 것이어서 남창여수(男唱女隨)의 선과 후를 구별 지었습니다. 누천년 인류가 되어 내려왔던 법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밖과 안, 처음과 나중, 주와 종속의 두 상대를 일컬어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어르신의 가르침이 법이고, 이것이 인류를 선도하여 온 인류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동산에서 발원한 하나의 강이 갈라져서 이 세상에서는 각기 다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ㄱ.

그 네 근원보다 더한 근원은 하느님께 속한 하나의 강이나 세상에서는 그 네 강이 근원이어서 인류의 문명은 이러한 강들이 돌린 곳에서 발상하였습니다.

그 네 강 중의 하나가 구스 온 땅에 돌린 강이고 ㄴ 그 강에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 낸 몸이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ㄷ.

생부가 있었기에 모세가 태어났겠으나 바로(이집트 지역의 고대왕조)의 공주가 강물에서 건져내 양육하였기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듯이 그곳에서도 신앙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세를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율법을 주시어서 지금의 유대교의 종장이 되었습니다.

지당한 법도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그 일 점, 일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만고의 철칙입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와 같이, 또 다른 강이 돌린 곳에서는 힌두 신앙이 있고 그 가운데서 석가가 대각하고 설법함으로써 불도의 종장이 되었고 요하와 황하가 돌린 곳에서는 제자백가 중 공자의 통예로 유학이 생겼으며

ㄱ.창2:10 ㄴ.창2:13 ㄷ.출2:10 ㄹ.출2:16 ㅁ.마5:18 ㄴ.눅16:17 ㅂ.마7:6, 15:27

이천 년 전의 사마리아 여인이 ㄱ 가졌던 신앙이 있는 유브라데 강의 중동에서 마호메트가 하느님 사자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이 일어났으니 그 모두가 인류를 가르친 선각자들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천지를 이룬 법을 깨우치신 것이고 인류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인류의 법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짐승에도 죄가 있소? 그 자체가 정신(혼)의 생명이 없는 자여서 그냥 본래 생긴 대로 잡아먹고 살다가 생긴 대로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는 삶뿐입니다. 죽는다고 서러워할 내용이 없는 육신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단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하느님의 생기가 임하여 태어난 혼이 있어서 육체가 죽어 땅에 묻혀도 그의 혼이 하느님께 호소하는 ㄴ 것이 문제입니다.

혼은 기식이 있어서 ㄷ 살아가는 육신과는 달라서 혼의 생사를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으리오.

성서의 말씀대로 아벨과 같이 선하여서 하느님께 열납(稅納)된 ㄹ 자는 하느님의 품 속에 있고 가인같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 짓는 자는 ㅁ 죄를 짓는 때 ㅂ 하느님과 격리되어 어둠에 갇히는 ㅅ 것을 믿을 뿐입니다.

성서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아벨과 같이 희생된 자의 원(冤)을 풀어주시는 ㅇ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하느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ㅈ 천자께서 강세(降世)하시는 것입니다.

천자의 재림(再臨)은 원(冤)을 맺게 한 부류에는 멸망의 화(禍)가 되나 하느님을 위하다가 목숨을 잃은 원혼과 같은 부류들은 반대로 거듭나는 부활의 ㅊ 복을 받는 극적인 순간이오.

하느님의 심판은 곧 하느님의 해원(解冤)입니다.

율법은 하느님의 성결함과 속되고 부정(不淨)함을 나누신 분별의 ㅋ 말 씀입니다.

ㄱ.요4:20 ㄴ.창4:10 ㄷ.창6:17, 7:15 ㄹ.창4:4 ㅁ.창4:7 ㅂ.창2:17 겔18:20 ㅅ.마5:25~26, 25:30 베후2:4 ㅇ.눅18:8 ㅈ.계6:10 ㅊ.요6:40, 44, 11:24 살전4:16 ㅋ.레10:10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 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ㄱ 하시었습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시어서 그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였으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ㄴ.

이스라엘의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불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ㄷ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이토록 두려우신 신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신이십니다. 『산 위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ㄹ 사십 주야를 떡도 물까지 마시지 않고 산에 있으면서 ㅁ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어찌나 거룩하신지 그 하느님은 고사하고, 하느님과 함께하였던 모세조차 산에서 내려오면 얼굴에서 광채가 발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라고 ㅂ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실상 하느님의 진면목을 뵈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느님을 직접 보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ㄱ.출19:11~12 ㄴ.출19:18~20 ㄷ.출20:18~19 ㄹ.출24:17~18 ㅁ.신9:9 ㅂ.출 34:35 ㅅ.출33:20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ㄱ 하셨으니 하느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말씀을 계속하시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ㄴ 하시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지나시는 곳에 모세가 있을 수 있던 것도 하느님 곁에 반석이 있어서 모세가 그 반석에 의지하여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한 것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등일 뿐입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얼굴을 뵈지 못한 것 같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느님을 온전히 본 자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성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자라도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성인들이라고 하지만 진리에 대한 그들의 형용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은 그들 모두가 모세와 같이 스스로 계시는 자의 참모습 보지 못하고 저마다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보고 그 모양을 형용하여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형용이 각기 달라도 가리키는 바는 선(善)하신 하느님의 한 형상입니다. 세상에서 근원이 서로 달라도 뿌리는 하느님의 동산에서 연유한 인륜의 법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ㄹ 법의 하느님이십니다. 천지 자체가 그 같이 나누시는 것으로 생겨났습니다. 나누시는 하느님 말씀의 그 일 점, 일 획이 떨어져 없어지는 것보다 그 말씀으로 나뉘어 생긴 천지의 없어짐이 당연히 더 쉬운 것입니다. ㅁ.

ㄱ.출33:19 ㄴ.출33:20~23 ㄷ.요1:18, 6:46 ㄹ.사2:4 마25:31~34 ㅁ.눅16:17

하늘이 있기에 땅이 있는 것이어서 하늘 천, 따 지입니다. 아버가 자식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하늘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이 하늘에 속한 것이며 남자가 여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르신의 지당한 법도입니다. 그 법도가 유일하신 아버지와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하느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형상입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하느님의 온전하신 참모습이 아닙니다.

아담의 말이 지당한즉, 하느님께서 『이러므로』 라고 하시어서 아담의 말을 인정하시고 그 후편을 붙이시어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이 분별했던 법도를 하느님께서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라고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법이나 그러한 나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전부가 아니고, 나뉘므로 태어났으니 다시 연합함이 사람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본래의 선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신께서 첫째 날에 당신의 아드님을 생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창조주는 천부(天父)와 그의 독생(獨生)하신 하나님이시요.

처음 몸과 나중 몸이신 그 양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한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의 몸으로부터 한 여자를 지으셨으나,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생산하신 첫째 날의 교훈이 아니라 인생이 지어지고서 있는 일곱째 날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생산하신 당신의 아드님을 사랑하시어서 그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께서는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가르치셨습니다.

ㄱ. 창2:24 ㄴ. 창5:1~2 ㄷ. 출33:19 마19:8 ㄹ. 요1:1, 18 ㅁ. 마11:27 요16:15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시며 당신의 뜻을 펼치시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부(天父)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 지으시고 나서는 당신께서 누리셔야 할 창조의 보람을 첫째 날에 탄생하신 당신의 아드님께서 누리도록 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안식하신 것이어서, 뜻을 펼치시던 그 거룩하신 주장의 자리를 아들에게 주시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생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참모습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이 주장하실 천상천하의 모든 주권을 아들에게 주시고 안식하신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드님 안에 계시고 그 아드님 또한 아버지를 그 같이 사랑하시어서 천부 안에 계시니 서로께서 안이시어 하나이십니다.

밖이 없습니다. 이와 저면 둘이로되 이의 안에 이가 없이 저가 있고, 저의 안에는 저가 없이 이가 있어 하나입니다.

상대가 있어서 사랑이 됩니다. 서로 안이 되어 상대를 떠받드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사랑이 사람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한 형상입니다.

법이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은 선한 형상입니다. 법이 하나님의 진면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법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뉘어 생긴 것은 육신일 따름이지, 마음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뉘는 것이 없으면 연합도 없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성과 속을 나누신 율법이 있습니다.

속된 사람으로서 마음을 바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쪽으로서 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교훈의 강령입니다.

ㄱ. 창2:3 ㄴ. 마28:18 ㄷ. 요14:10 ㄹ. 요10:30, 17:21 ㅁ. 요1서4:8, 16 ㅂ. 마22:37 ~40 요13:34 ㅅ. 마5:48 ㅇ. 출33:19 ㅈ. 마22:40

법도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 짐승일 뿐이요, 법이 있어서 인생이고 사랑의 희생이 있어서 그 인생이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됩니다.

처음이신 천부께서 나중이 되신 것 같이 아담 또한 처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체를 버려서 사람마다 서로 종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요.



인생과 인생 사이에 서로 상대를 떠받들기만 하는 종이 되면ㄷ 그들 가운데 이쪽의 주장도 없고 저쪽의 주장도 없는 하느님의 선하신 말씀만이 주장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성품 그대로 친히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인생을 위하여 종노릇을 하셨건만,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린 쪽이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경계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이 거역하여서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한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의 몸을 취하시어서 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처음과 나중의 양 상대가 서로 종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말씀하셨건만,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만 하였던 아담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서 여자 위에 군림하였던 것이어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그 아내는 제 발로 하느님을 피하여 숨었건만 그냥 그렇게 법대로 처벌하시면 되실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에게 찾아오시고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고 그와 같이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ㄷ 애절해 하시는 사랑이 하느님의 참모습입니다.

ㄱ. 마7:6, 15:26 ㄴ. 벰전1:15~16 ㄷ. 마20:27 요13:14 ㄹ. 창3:9~13

하느님의 형상은 육신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교훈은 남자가 육신으로 부모를 떠나고 또 육신으로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ㄱ.

아담은 자기를 지켜서 내 이쪽에서 연유한 저 상대를 말하였으나 그 반대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처음이라고 하는 자기 쪽을 버리고 여자에게로 가 여자에게 속한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 남자가 여자에게로 장가가는 것입니다.

조선 말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시집간다고 말을 하듯이 남자 또한 장가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혼인을 놓고서 남녀가 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맺으면 먼저 장가에 가 처가살이를 하였던 미풍이 있었듯이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부인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결혼 후라도 여자는 자기 성씨를 박탈 당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조선의 예절입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시집 몸이 되듯 남자 또한 장가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혼인입니다.

서로 자기 쪽을 버리고 상대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서로 상대를 높여 상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남자가 여자를 떠받들어야 하고 그와 같이 여자에게도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ㄷ 하늘입니다. 남녀가 서로 하늘같이 받들어서 떠나없이 한 몸이 되어 사는 그 세상이 하느님의 낙원입니다.

남녀평등은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도리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에게 명하시어서 남자로서의 미덕을 행하여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ㄱ. 요8:15 ㄴ. 고전11:3

하느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으니 여자로서 타고난 본분이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요, 아담 또한 자신의 그 먼저 된 입장을 떠나 아내를 섬기는 아내의 종이 되는 한 몸입니다.

모세의 법을 넘어ㄱ, 이 같은 희생의 사랑이 곧 우리네 인생을 위한 하느님네 사랑이오.
사랑이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인생에 주신 교훈이며ㄴ 계명입니다ㄷ.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시어 당신의 유일하신 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천자의 지극히 높으신 자리를 떠나시어 인생보다도 못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어 인생을 섬기는ㄹ 종이 되셔서ㅁ 당신의 피를 다 흘려 인생의 더러움을 씻으신 하느님의 사랑이오.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하느님께서 여섯째 고개를 넘어 일곱째 날로 나신 빛을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시기까지 당신의 성호를 나타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ㄴ.

그와 같이, 비록 아담이 그의 배필보다 먼저 있었으나 하느님께서 그 배필을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담은 그의 이름조차 갖지 못하였습니다ㄱ. 여자가 없이는 남자라고 하는 의미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지으시고 그 배필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었으니 천정배필(天定配匹)이요 사람으로서로는 끊을 수 없는 천생연분(天生緣分)의 천연입니다ㅇ.
유일하신 처음과 유일하신 나중의 그 처음과 나중이ㅈ 하느님이시오. 비록 남자라 하더라도 일양(一陽)과 일음(一陰)의 정실 외에 다른 소실을 보는 것은 본래ㅊ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법이 있다 한들 음행을 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ㅋ.

ㄱ.마5:21~22, 27, 31~32, 33~34, 38, 43~44 ㄴ.요1:18 ㄷ.요13:34, 14:15, 15:12 ㄹ.마20:28 막10:45 ㅁ.요13:14~15 ㄴ.창2:1~4 ㄱ.창2:18~19 ㅇ.마5:32, 19:3~8 ㅈ.사44:6 계21:6, 22:13 ㅊ.마19:8 ㅋ.마19:9

하느님의 성산 가운데는 서로 상반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생명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고 하신 말씀이 산 혼이었던 아담에게 이르신 첫 교훈이시니, 그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지키는 것이 곧 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법이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느님이시오ㄴ. 그같이 두려우신 자가 분명히 하느님이시나, 그것은 하느님의 등의 모습일ㄷ 뿐입니다.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ㄹ. 법대로라면 인생은 그 누구도 희망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오. 사람은 태어나 자신을 인식하며 물정에 눈이 뜨일수록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한 구절이 성서 으뜸의 말씀이오ㅁ. 수많은 율법의 일 점 일 획은ㄴ 고사하고 이 첫 구절마저 사람이 마구 점과 획을 빼고 보태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신의ㅈ 말씀을 첫 구절조차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가 무엇으로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리오.
성서 중에서 거룩하게 여겨야 할 가장 중한 어휘가 이 첫 구절의 주어인 복수의 하느님들이시고 그 하느님들께서 창조하신 것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지으신 천지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성서의 이 복수문자 속에 이미 창조된 하늘보다 높으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느님께서 다섯 번을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ㄱ.창2:9 ㄴ.요5:45 ㄷ.출33:23 ㄹ.사14:1~3, 53:2~3 ㅁ.창1:1 ㄴ.마5:18~20 ㄱ.신30:9 사34:16 마5:18 요10:35 ㄷ.후3:16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날이 아닙니다. 첫째 날은 하느님께서 빛을 생산하신 날이요. 그 빛이 일곱째로 이르러 비로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다하시고 안식하신 때가 일곱째 날입니다 ㄱ.

창조는 여섯째 날에 다 지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은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날이나, 일곱째 날은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셨던 독자를 다시 보시고 그를 하늘의 모든 천사가 찬양하고 이십사 시관까지 경배하는 ㄴ 거룩한 보좌에 앉히시어서 만유를 다스리는 ㄷ 원군이 되게 하신 날이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시는 ㄹ 때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느님의 안식이 아니요 일곱째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하느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천지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어둠이 없는 신천지가 ㄴ 이루어지는 때가 하느님의 안식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네끼리만 서로 그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인생에 베푸신 ㄴ 임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보다 더 중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살육당하도록 허락하시어서 인생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느님께서 인생이 영원히 산 자가 되기를 바라시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범하고서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ㄱ 자기를 변호하였습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동산에 있던 왕에게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시었고 ㄴ 그것은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ㄷ. 대관절 그 올바르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고 어찌서 교만하였다고 하셨을까?

아담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담에게 여자는 자기와 한 몸이 아니라 그이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준 나의 소유입니다.

ㄱ.창1:31~2:1 ㄴ.계5:11~14 ㄷ.골1:18 ㄹ.계10:5~7, 21:6 ㄴ.계21:1, 5 ㄴ.요1:29, 3:16 ㄴ.창3:12 ㄴ.겔 28:15 ㄴ.겔28:17

그러던 아담이 죄의 응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회개하였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더라』 라고 ㄱ 하였습니다.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범죄 할 때의 그 교만한 태도와는 뒤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처음이라고 하는 자신을 버려서 나중이 되었고 이제는 아내가 지어미입니다.

조선 말에 아내를 지어미라 하고 그와 같이 남편을 지아비라고 하듯 서로 나중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서로 나중이 되어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이와 저의 주장이 없이 하느님의 선하신 뜻만이 주장하시는 한 몸이니 그 한 몸의 처음은 오직 하느님이실 뿐입니다.

아담이 이같이 회개하였기 하느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죄 없는 목숨을 희생시키시고 그 가족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ㄴ.

죄짓고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짐승이나, 죄로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하느님께서 감추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스스로 그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여 가렸어도 ㄷ 아담은 여전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ㄹ 하였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입니다. 먹으면 죽는 나무와는 반대입니다.

아담이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어서 남자라고 하는 그 처음을 부정하였습니다. 내 몸이 있어서 내가 보는 저 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ㄴ 것입니다.

아담이 불의(不義)하였던^ㄴ 것은 그가 하느님의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던 선하신 하느님의 형상을 본받지 않고 바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ㄱ.창3:20 ㄴ.창3:21 ㄷ.창3:7 ㄹ.창3:10 ㅁ.마16:24 ㅂ.막8:34 ㅅ.겔28:15

산 혼이 되어 하느님의 동산에서 자적하던 생명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기식이 있는 육체만 남은 아담에게 이르신 하느님 말씀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ㄱ 말씀을 들은 아담이 비로소 아내의 이름을 고쳐 부른 것입니다.

여자가 자신에게서 취함을 입었으면 그 자신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취하여져 난 것은 육신이지 혼의 생명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 어진 육신의 생명만 남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느님의 생기로 인생을 신령한 신선으로 살려 놓았더니 죽은 자가^ㄴ 되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지고 말 들풀과 같이 인생의 삶이 허망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 혼이었던 아담조차 먹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입니다^ㄷ.

생명은 사망과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남자에게서 나는 것이 생명이지 아니요 여자라고 하는 나중 몸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처음에서 나중으로 진척하시며 나뉘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그 같이 지어져서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만물 중의 나중 몸인 여자에게서 탄생하시어서 여섯째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일곱째의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이는 바로 사람에게서 탄생하신 이 인자(人子)이시거니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시고 탄생하시었기 여자의 후손입니다^ㄹ.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남자라는 의미도 되는 이름입니다.

ㄱ.창3:19 ㄴ.막12:27 ㄷ.눅9:60 ㄹ.요3:15, 6:40 요1서1:2, 2:25 ㅁ.창3:15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십니다 ㄱ.

세상에, 사람이면 어디까지나 사람이지, 당신을 가리키시어 인자(人子)라고^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요.

인류가 아니라 그 인류의 후세, 인자이십니다.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ㄷ 인간의 몸에서 탄생하신 임이시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려오는 인간의 세대가^ㄹ 아니라, 인류의 차세대이신^ㅁ 후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시나 남자의 후손이 아니요. 유대 왕 다윗의 후손에게 정혼(定婚)한 동정녀 몸에 거룩하신 신으로 잉태되시어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 후손이 바로 여섯째의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일곱째로 나신, 안식일 본래의 주인이십니다^ㅅ.

세상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표징이고^ㅅ 그 표징의 실상입니다.

하느님의 신과 사람의 몸을 하나로 가지시어서 신과 육체가 나눌 수 없는 전대미문의 후세이십니다. 반신반인이 아니라 온전한 하느님이신^ㅇ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어서^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후세입니다.

하늘보다도 먼저 계시는 그 천자께서 유대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 인생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육신으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날이 새면 낮이 되고 어둠이 깔리면 밤이 되듯,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하지 못합니다^ㄷ. 선하시고 참되신 임께서 오셔서 당신의 그 선을 행하시고 당신의 그 참을 말씀하셨기 악하고 거짓된 무리가 그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오셨건만 세상에는 이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우며^ㄱ 백성 위에 군림하는 세력이 그들의 나라를 이루고

ㄱ.마3:17 막9:7 요3:16 ㄴ.마24:27 요12:34 ㄷ.마1:18 ㄹ.마12:39, 45, 17:17 막8:38 9:19 ㅁ.눅16:8요2:4
 ㅂ.마12:8 막2:29 눅6:5 ㅅ.출31:13 ㅇ.요1:18, 요1서5:20 ㅈ.요1:14 딤펵전2:5 요일4:2 ㅊ.창1:4 고후6:14 ㅋ.마
 23:4 눅11:46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지배권을 지키려고^ㄱ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네 쪽이 아니면 적으로 만들어 미워하고 희생시켜 죽이는 것이 악이면 선은 그 반대입니다.

하늘 아래 인생이면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고 내가 나의 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내 이쪽을 낮추어서 희생하는 것이^ㄴ 선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ㄷ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선한 형상을 내려받으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ㄹ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좇으셔서, 세상의 죄를 떠맡아 짊어지고^ㅁ 피를 흘리셨으니 선(善), 자체입니다.

하늘의 하느님네께서는 이같이 땅에서 사는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서 당신네를 희생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빛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었기 세상의 빛이^ㅂ 되어 계셨던 것이고 그 어린양께서 숨을 거두실 때, 시각이 중천인데도 어둠이 내습하여 천지마저 증조를 나타내었습니다^ㅅ.

숨을 거두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어서, 창세 이래 인간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ㅇ 드러내시어 초자연적 경계를 개벽하셨습니다.

하늘보다도 먼저 나신 그 빛이 천지 만물과 인생까지 휘덮는 여섯째의 어둠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선이 결국 악을 이긴 것이오. 이로써 사망에 매어서 사는 인생이 비로소 영생의 소망을^ㅈ 갖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친히 사람과 함께 계셔서 영원히 밤이 없는^ㄷ 새 세상의^ㅋ 도래를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ㄱ.마21:38 막12:7 눅20:14 ㄴ.마5:38~45, 10:38, 16:24 ㄷ.사53:7 요1:36 계5:6 ㄹ.눅22:42 요5:41, 8:50
 ㅁ.사53:12 요1:29 히10:9~12 요일2:2 ㅂ.요1:4, 5, 9, 3:19~21, 8:12, 9:5 ㅅ.눅22:53, 23:44 ㅇ.요일1:1~2
 ㅈ.행23:6, 24:15, 갈5:5 고후5:2 딤펵1:2, 3:7 ㅊ.사60:19~22 계21:3~7, 22~27, 22:3~5 ㅋ.마12:32, 19:28

여섯째를 넘어 개벽 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경계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서 그 여섯째의 어둠에 갇혀서 죽고 마는 인생에서 한 차원이 더 진보되어 태어나는 생명의 경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신 것이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ㄱ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ㄴ 영생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ㄷ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자께서 한 혼인집 잔치에 초대받으셨는데 혼인집에 술이 동이나

천자의 모친이 아들에게 그 사정을 고하셨습니다. 그때에 천자께서 그 모친을 일컬으시어 여자라고 부르시고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하시고 돌 향아리 여섯을 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서야 비로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ㄹ.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마신 자들이 이르기를 모든 잔치에 먼저 좋은 것이 나오거늘 나중에 나온 이 포도주는 그 반대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하느님께서 땅 위의 짐승들을 지으셨던 여섯째 날에 지어져서 여섯째 날에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된^ㄱ 인류이지만, 여자의 후손께서는 일곱째의 몸이십니다. 여섯 수가 다 채워져서야 비로소 당신의 때가 오는 것이어서, 하느님께서 여섯째 날에 주신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복은 일곱째의 인자로 말미암아 주시는 차세대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독생자만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 독생자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어 열리는 당신의 수많은 열매 또한 당신과 같이 더는 인류가 아닙니다. 성자의 모친께서 성령을 받으셨던 것 같이 성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인생의 몸에서 거듭나는 새 차원의 생명이어서 이도 역시

ㄱ.롬7:24 히2:14 ㄴ.요일3:2 ㄷ.요3:3~8 벰전1:3~5 ㄹ.요2:1~10 ㅁ.창1:28

성자와 같은 여자의 후손이 되기^ㄱ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ㄴ 이르면 천자께서 바로 그 소망을 이루시겠다고 인생에 언약하신 것이 신약이라고 하는바, 곧 그리스도의 언약이오^ㄷ. 천자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당신의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ㄹ 것이어서 거듭나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ㅁ 하신 그 언약입니다^ㅂ.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ㄱ 하신 성자의 언약이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ㄴ 하시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하신 씨를 이 세상에 심으신 것이요, 드디어 그 결실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마지막 때가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느님께서 거두시는^ㄱ 하느님의 첫 열매가^ㄴ 곧 실상의 참 이스라엘입니다^ㄷ.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져 사람 가운데서 구속(救贖)함을 입음으로서^ㄹ 흠이 없는 온전하고 거룩한 몸이 되어서야^ㅁ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인자께서 아들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시어서 후천(後天)을 말씀하셨고

ㄱ.창3:15 사54:1 계12:5 ㄴ.요6:39~40, 54, 11:24 ㄷ.마26:28 막14:24 고전11:25 히7:22, 8:6~13 ㄹ.마26:28 막14:24 ㅁ.요6:40 ㅂ.요6:44, 8:51 고전15:51 ㄴ.요일11:25~26 ㅅ.요일12:24~26 ㅆ.마3:12, 24:31 막13:27 사13:2~16 ㅈ.약1:18 계14:4 ㅊ.계7:2~8 ㅊ.눅21:28, 24:21 롬8:23 엡4:30 계14:3~4 ㅊ.출31:13 눅6:40요 17:17

그 후세께서 복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셨기 이제는 그의 열매가 맺혀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모든 산 자의 어미라고 고쳐 부른 것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ㄱ 된 인생이 결국 여자에게서 탄생하실 하느님의 어린양을 통하여 구속(救贖)을 받고 산 자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그의 많은 열매 또한 그리스도의 모친과 같이 하느님의 신을 받은 몸에서 거듭나는 아들들이기^ㄴ 때문입니다.

천자께서 거듭나는 부활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산 자들입니다. 천국 소식을 영원한 복음(福音)이라 합니다. 여섯째 날 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탄생하신 인자로부터 임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요.

복록이 무진하고 수명이 무궁한 그 운수는 일곱째의 생명이신 인자로부터 임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이어서 남자가 태어나서 칠 일을 지난 후 팔 일에 할례(割禮)를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양피(陽皮)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몸을 받아들이는 몸이듯, 하느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몸이라는 상징으로 할례를 받아서 더는 남자가 아니라는 표징을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라고 하는 자신의 주체를 부인하여서 하느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지으신 옷을 입었듯 인생이면 남자든 여자든 주를 받아들이는 주의 여자가 되어서 그 주와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지 않고 희생양의 씨 종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는 양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여서 성서에서 양(羊)과 여(女)는 같은 한 뜻입니다.

성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이름 씨가 복수 형일 뿐 아니라,

ㄱ.창2:17 마8:22, 22:32 눅9:6 ㄴ.눅16:8 요12:36, 19:26 계12:5, 21:7 ㄷ.마22:32 ㄹ.계14:6 ㅁ.창17:12

ㅂ.창17:11 ㅅ.요17:21~23 ㅇ.마2:6 요10:16

한 단계 나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까지 가리켜 바로 그 어휘를 사용하시어서 하느님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그 진리의 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그도 역시 하느님 중 하나가 됩니다.

만왕(萬王)이요 만주(萬主)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내천(人乃天)입니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하늘의 거룩한 자가 되기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하느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성서의 성구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구를 다시금 지적 하시어서, 성서에 이중으로 확증하여 주신 진리입니다.

이 확증의 말씀을 한글판 성서에는 하느님이라는 어휘 대신 신이라는 어휘로 바꾸어서 번역하였습니다.

율법 첫 구절의 천지를 창조하신 복수 형의 하느님과 동일한 어휘를 신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첫 말씀 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 역시 그 신과는 다른 어휘입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나서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이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느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신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이로써 태초에 하느님께서 심으셨던 하느님의 낙원이 결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으로부터 시작된 성서는 첫째 날에 탄생하신 하느님의 빛이 일곱째 날로 나시어 높음 위에 계셔서 땅에 비취는 새 세상으로 결실을 보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ㄱ.시82:6 ㄴ.요1:1, 17, 8:45, 14:6 약1:18 ㄷ.요3:8, 14:17 ㄹ.마19:28 딤후6:15 계1:6, 3:21, 5:10, 14:1~5,

17:14, 19:16 ㅁ.출31:13 마5:48 요17:19 살전5:23 히2:11, 10:10 ㅂ.요10:34 ㅅ.창1:2 ㅇ.출31:13 ㅈ.창2:1

ㅊ.요5:16~17 ㅋ.사48:7, 65:17~18 벨후3:13 계21:1 ㅍ.마19:28 계21:5 ㅑ.창2:8 ㅓ.창1:2

천자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천부의 뜻을 천자께서 이루신 것이어서 천부와 천자의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뜻대로 땅에 이루어질 이 세상의 운명이 지어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인생에 주신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천지 만물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생겼습니다. 하느님의 첫째 날은 말씀이 빛이 되신 것이어서 창조하신 날이 아니라, 둘째 날부터는 천부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전편이 있고 천자께서 그 말씀을 받들어 지으시는 후편이 있어서 하느님의 그 양의(兩儀)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첫째 날에 말씀이 빛이 되시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어서 여섯째 날의 어둠을 넘어 일곱째 날의 경계를 개벽하신 것이요. 이로써 사람으로서는 통과할 수 없었던 생명나무에 이르는 영생의 길이 트였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심으신 원시(原始)의 낙원이 이 세상에 열리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루실 구세(救世)를 일컬으시어 반본(返本)의 의미로 회복이라는 어휘를 상제께서 제자들과 사용하셨습니다.

선천의 묵은 하늘이 지나고 일곱째 날의 후천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자께서 천부께 아뢰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하나요 둘이 하나요 셋이 하나라고 쓰인 천부(天符)가 극동에 전하여 내려오듯, 천자께서 가르치신 하느님은 유일하신 주이시오.

ㄱ. 요19:30 ㄴ. 계21:6 ㄷ. 마6:10 ㄹ. 요1:14 히2:14 요일4:2 ㅁ. 창3:24 ㅂ. 창2:8 ㅅ. 요3:17, 12:47 ㅇ. 행1:6, 3:21 ㅈ. 계21:1 ㅊ. 요17:21

그 유일하신 주는 독생하신 하느님이 계시어서 유일하신 아버지와 유일하신 아들의 양위께서 저가 이 안에, 이가 저 안에 계시어 하나이시며, 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느님의 점지를 받은 자들까지 삼대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시어 아버지의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와 독생자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인생도 성자를 사랑하여서 그의 안에 거하면 성자와 하나가 되어 결국 거룩하신 하느님네들의 한 「우리」가 되기에 이른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거룩한 존재로 탈바꿈되는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인생의 주는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느님네들

이시오. 성서 속에 오직 뿐이신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성구는 분명히 하나를 의미하나 하느님이라는 어휘 자체가 복수명사이어서 그 복수의 님들만이 유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던 신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듯이, 하느님께서 인생에 당신의 신을 보내시어서 마지막 때 물과 그 진리의 신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심으로 많은 당신의 아들들을 생산하시고자 하심이 하느님의 만고의 뜻입니다.

천자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인자(人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어서, 당신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때를 가리켜 도리어 당신께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시었고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생산하신 독생자를 통하여 그 독생자와 같은 당신의 씨들을 하늘의 별만큼 수없이 생산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목적입니다.

ㄱ. 마6:9 요17:11, 21~22 ㄴ. 계20:6 ㄷ. 창1:26, 3:22 ㄹ. 창1:2~3 ㅁ. 요3:5 ㅂ. 요12:23~24

지금은 예정된 첫 열매의 수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ㄱ.
 인자께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여섯째의 어둠을 이기시고 일곱째의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거룩하신 영광을 얻으셨으나 세상은 칠흑 같은 밤입니다^ㄴ.
 세상의 빛이 세상에 있어야 낮인데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ㄷ.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친히 조화(造化)의 정사를 펼치셔야^ㄹ 비
 로소 하느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ㅁ 것입니다.
 창세 이래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신 어린양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당신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거
 듭나 당신과 함께 만국을 통치할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어서^ㅂ 만왕(萬王)의 왕, 원군(元君)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ㅅ 천상의 원군이 되신^ㅇ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
 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목숨을 버리셨기 아버지께서 그를 사망에서 건지시어 당신의 거룩한 자리에 앉
 히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육신은^ㅈ 궁창(穹蒼)을^ㅊ 초월한 초자연의 몸입니다. 천상천하의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지
 존하신 몸이 되셨습니다.
 문제는 그 성자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ㅋ 부활하신 육신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ㅌ 기약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를 죽였으나 하느님께서 그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리시고 당
 신에게로 올리시어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ㅍ 이상, 이 세상 임금은 정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ㅎ.
 성자를 학살한 자가 누구요. 세상의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천하 만민을 장악한 이 세상의

ㄱ. 계6:11 ㄴ. 마24:12, 25:6 요9:4, 14:30 살후2:3 계13:3~18 ㄷ. 요9:5 ㄹ. 계11:17 ㅁ. 계10:7 ㅂ. 계1:5, 5:10
 ㅅ. 마28:18 요17:2, 10 골1:15~18, 2:10 ㅇ. 히8:1, 12:2 계5:11~14, 17:14, 22:1~3 ㅈ. 눅24:39 행1:11 요2서
 1:7 ㅊ. 창1:7 ㅋ. 계1:7 ㅌ. 마24:3, 27~30, 37, 요14:3 계22:20 ㅍ. 시110:1 ㅎ. 요12:31, 16:11

권력이 제아무리 발달한 살생의 무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 자체를 이기신 자와는 맞수가 될 수는 없습니
 다.
 기약의 때가 이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ㄱ 오시는
 주와 한 무리를 이룹니다.
 인생이 부활하신 성자와 같은^ㄴ 몸으로 거듬나, 그들의 원수(元帥)를 따르며 만국을 심판하는 어린양의 군대
 가 됩니다^ㄷ.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여러 사람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았던 제자 요한은 그들의 앞에 나타
 나신 바 된 그 생명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믿어 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그곳의 모든 이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것이었고 그 때문에 단지 듣고 눈으로 본 바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보태서 다시 말하기를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언하였습니다^ㄹ.
 부활하고 변화한 초자연적인 생명체들이 하나도 아니고 수도 없이 그들의 임금과 함께 세상에 출현하는 날이
 오는 것이오. 문제는 이 세상의 권력이 그에 대적하여 전쟁을 결행하고자^ㅁ 만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부활하고 변화될 몸은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살과 뼈의 육신이오^ㅂ. 성자를 찢었던
 이 세상 나라의 군사들이^ㅅ 볼 수 있는 존재들이어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 세상 나라의 권세는^ㅇ 멸망할 운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세상입니다^ㅈ. 대명천지의^ㅊ 새 세상입니다. 악하고 음란하며 믿음이 없고 패역
 한 이 세대가^ㅋ 지나고 빛의 아들들의 세대가^ㅌ 도래하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을 장악한 권세는 살생의 권세이어서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 하느님
께서 지으신 이 땅에 사는 인생이

ㄱ. 고전 15:51~52 ㄴ. 마10:25 고후3:18 빌3:21 요일3:2 ㄷ. 계14:1, 19:1~16 ㄹ. 요1서1:1~2 ㅁ. 계16:14,
19:19 ㅂ. 눅24:39 요20:27 ㅅ. 계1:7 ㅇ. 계13:18 ㅈ. 마12:32 ㅊ. 계21:25 ㅋ. 눅9:41 ㅌ. 눅16:8 ㅍ. 요16:33
ㅎ. 마4:8~9 계13:4

죽음을 무서워하여 그 권세에 매였으나 어린양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시려고 목숨을 버리셔서 사망을 이
기시고 부활하셨기니, 어린양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어린양과 같은 몸으로 거듭나 사망의 권세가 더는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에 목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양께서 버리신 것도 육신의 목숨이고 부활하시어 다시 얻으신 것도
육신의 목숨이요. 어린 양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이 마지막 때 다시 찾는 생명 또한 하느님께서 새로 주
시는 목숨입니다.

골육지친으로 말미암아 태어나 붙어 있는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육신
으로 땅에서 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새 목숨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하셨듯이 여섯째 날 지어진 사람의 생명은 저녁이 되어 사
장되고 마는 생명이요. 그 고개를 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은 수생화(水生火)하고 화생수(火生水)
하는 상생(相生)만의 경계여서 영생하는 몸입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고 하신바, 여섯짜리 수로 이루어진 육백육십육을 이기고 벗
어나는 것입니다.

ㄱ. 요18:25~27 행2:24 롬5:14, 17 ㄴ. 롬6:9 히2:14~15 계1:18 ㄷ. 사25:8 눅6:40 고전15:54~55 계2:11, 20:6
ㄹ. 요10:17 ㅁ. 마16:26 ㅂ. 요3:5 ㅅ. 마26:29 ㅇ. 계15:2 ㅈ. 창1:31 ㅊ. 계13:16~18

천자의 계시에서 믿는 자라는 어휘는 없어도 이기는 자라는 어휘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
는 이름이 이긴 자를 의미하는 이름이요. 어린양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인지 어린양께서 주(主)이신지는 말세에 이르면 여지없이 판별나고야 맙니다.

하느님과 그의 독생자께서 계시어서 서로 상대를 위하시는 상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산 혼으로 거듭나 하
느님의 동산에서 살았건만, 그 아담은 하느님의 선한 형상과는 달리 스스로 주인이 되었기니 하느님의 말씀
을 배반하고 더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던 낙원에 거하지 못하고 상극이 지배하는 세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남녀에 차별이 생기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
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세상에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하느님의 선한 형상을 나타내 보이셨으나 어둠에 처한 세상은 그를 알
지 못하였고 세상 나라의 권세는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천자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고 그 영생을 직접 보았던 사 제자들이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오 주의 언약을 믿고 주의 뒤를 따라 목숨을 버렸습니다. 버려서 다시 목숨을 얻는 길이 사망을 이기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천자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상제께서 오셔서 당신의 뒤를 따라 사망을 이긴 자들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국을 통치하심으로써, 서로 자기 쪽을 위하여 경쟁하고 투쟁하며 사는 짐승의 세상이 서로 상대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상생의 세상으로 뒤바뀌고야 마는 것입니다.

ㄱ. 계1:1 ㄴ. 창32:28 ㄷ. 사9:6~7 습3:15 숙9:9 마2:6, 27:11 눅1:16 요1:49, 12:13 ㄹ. 창2:23 ㅁ. 창3:15~19
 ㅂ. 요1:5, 10 ㅅ. 요1서1:1~2 ㅇ. 요6:39~44, 54 8:51 고전15:51 ㅈ. 마10:38~39, 16:24~25 ㅊ. 요12:48 계
 19:11, 20:4

내 뜻, 내 뜻 없이 하느님의 선하신 뜻만이 주장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가 사십 일 동안이나 떡이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광야에 있는 황무한 산속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친히 계명을 새겨진 두 돌 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한 첫 마디가 『옛세 동안은 일하고 제 칠일은 너희에게 성일(聖日)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安息日)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십 일 만에 나타난 모세가 첫 마디로 이토록 엄중하게 전할 만큼 안식일이 뜻하는바는 인생에 중대하기 그 지없는 소식입니다.

대관절 일곱이 무엇이기에, 지키는 때가 제 칠일만도 아닙니다. 일곱째 달과도 일곱째 해도, 칠칠 주와도 칠칠 년도, 한 단위의 일곱만 아니라 두 단위도 일곱 짜면 지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제 칠일 자체가 기록하여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가 의미하는 언약의 상징으로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느님의 확고하신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기록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바, 결국은 인생의 성화(聖化)가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인생이 기록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언약이고 하느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하느님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ㄱ. 출35:1~3 ㄴ. 레16:29, 23:24 ㄷ. 출21:2, 23:11 ㄹ. 출34:22 ㅁ. 레25:8 ㅂ. 출31:1 ㅅ. 출31:13, 17 ㅇ. 출
 31:13

하느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과는 달리 하느님의 신께서 친히 수면에 운행하시어 생산하신 빛이 있으셔서 그와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 중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날에 하느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었건만 그 말씀은 그 여섯째 날에 하느님의 지으시던 일이 다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

나라』라고 나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이 하느님의 지으시던 일의 다함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지으시는 일의 마침은 나 여섯째의 어둠을 깨뜨리고 일곱째로 다시 나시는 첫째 날의 빛입니다.

온 세상을 영원히 밝히시는 나 하느님의 빛이시니 인조 된 불빛일량은 피우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이오 나.

낮이라고 칭하신 그 빛이 사람이 지어진 여섯째보다 나중의 일곱째로 나시니 하느님께서 그 빛을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말씀으로 나지 않은 어둠이 빛 안에서 지어진 모든 것을 가두나 그것이 하느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일곱째로 나신 생명의 빛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곧 하느님의 안식입니다.

일곱째 날은 이전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비로소 불리던 나 제 몇째의 날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지으신 천지와 인생에 빛을 비추시어 다시는 밤이 없는 나 명천(明天)을 성서는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나는 알파(회랍의 첫째 문자)와 오메가(마지막째 문자)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나 하시었습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어휘로써 삼세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보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있으셔서 첫째 날에 하늘보다도 먼저 당신과 같은 밝음이 탄생하시었으니 만유의 시작이시오.

나.창1:31 나.창2:2 나.계10:7, 21:6 나.계22:5 나.출35:3 나.창1:5,8,13,19, 23,31 나.계21:23~25, 22:5

나.계22:13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먼저 좋으셨던 그 빛이 둘째 낮이 되어 비추시매 하느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늘이 지어졌으며, 이 같이 셋째로, 넷째로 진행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여섯째 고개를 넘어 사람보다 나중이 되시는 일곱째 몸으로 나시었으니 끝이십니다.

하늘보다 먼저 계시어서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에서 탄생하시어 죽임을 당하시었고, 그 여섯째 어둠을 이기시고 나오셨으니 사람보다 나중이신 일곱째의 생명이십니다 나.

하느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바로 하느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일곱째의 빛이 나기를 기다리셨으니 하느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당신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생산하신 당신의 아드님을 위하여서입니다 나.

일곱째의 날이 이르기까지 주장하시며 진행하시던 하느님께서서는 안식하시는 반면, 첫째 날에 탄생하시어 여섯째의 어둠을 넘어 일곱째로 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서는 복을 누리며 거룩하신 나 자가 되신 것이니 하느님께서 그 지으신 천지 만물을 아들에게 상속하시어 나 당신께서 주장하여오신 당신의 자리를 양위(讓位) 하신 나 것입니다.

천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어 나 당신의 모든 것 나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어 나 그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

사람이 마땅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 주(主)는 나 하느님께서 인생에 주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오. 사람에게 미치는 여섯째의 사망을 이기시고 초자연의 몸으로 부활하신 천상의 임금이십니다.

그 임금께서 가라사대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

나.요8:12 요1서1:2 나.창2:3 나.골1:16 나.눅1:35 나.마21:38 막12:7 나.시2:6~12 단7:13~14마11:27, 요

3:35, 5:22, 13:3, 17:2 히1:2 나.마3:17, 요3:17, 35, 5:20, 17:23~26베후1:17 나.사9:6 마11:27, 요3:35,

16:15, 17:10 나.마28:18 나.요12:23, 13:32, 17:24 계5:7~14 나.시110:1

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ㄱ 하시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주를 따르려고 자기 권속과 자기 목숨의, 그 자기 쪽을 미워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자격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오. 천자를 따르는 길은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이 지향하는 이기주의와는 반대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ㄴ 희생의 길입니다.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태어나, 하느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은 제 몸의 욕구만을 따라 움직이는 짐승의 ㄷ 삶이나,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자기의 가슴을 치는 것은 ㄹ 죄를 짓는 자신을 미워하여서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내면에 관통하는 정신이 사랑이어서 두 돌 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ㅂ 결국 사랑을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입니다. 상대가 있어서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ㅅ 하늘 아래 인생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의 첫째 돌 판입니다. 성자께서 마지막까지 성부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가장 크고 중한 하느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이루셨듯이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성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어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성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느님이십니다 ㅅ.

ㄱ. 눅14:26 ㄴ. 눅14:27, 마16:24 ㄷ. 마7:6 ㄹ. 눅18:13 ㅁ. 마22:37~40 ㅂ. 신4:13 ㅅ. 출20:3~11 ㅇ. 요1서 4:8, 16

천부와 천자의 그 하느님들께서 ㄱ 당신네끼리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느님의 성정 그대로 하느님께서 먼저 인생을 사랑하시어 ㄴ 당신보다 더 아끼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어서 인생을 위한 희생의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실 지극히 존귀하신 천상의 천자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인생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ㄷ. 선생께서 그의 제자에게, 주께서 그의 종(使徒)에게 거꾸로 하인이 되시어 발을 씻어 주시어서 ㄹ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시고 그 섬김의 의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내 이쪽이 크게 되고 높은 자가 되기 때문에 상대가 미천하여 지는 것이나, 상대를 높이려고 내 이쪽을 발아래 낮추어서 상대의 더러움을 씻는 하인이 되는 것이 ㅁ 섬기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어린양께서 인생을 깨끗게 하시려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오. 죽은 자가 된 인생을 다시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느님네께서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당신네 쪽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건만 천자의 호화로운 궁궐이 아니라 반대로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ㅂ 언행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시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잔(盞)을 앞두고시고 그 잔이 당신에게서 그냥 지나쳤으면 하시는 당신의 원이 없을 수 없건만 그 원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구(祈求)하셨습니다 ㅅ.

만인 앞에서 머리는 머리대로 찢리시고 사지는 사지대로 못 박히시고 별거벗기셔서 끝까지 고통을 받으시다
가 옆구리까지 창으로 찢리셔서, 인생을 위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ㄱ.시110:1 사9:6 요1:1, 18 빌2:6 ㄴ.요1서4:10, 19 ㄷ.마20:28 막10:45 ㄹ.요13:4~8 ㅁ.요13:13~14 ㅂ.요
7:18, 8:50 ㅅ.마26:39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인생을 섬기게 하셔서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代贖物)로
주시려고 ㄱ 그보다 더한 치욕과 고통이 있을 수 없는 저주를 받게 허락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고통보다 오직 뿐인 외아들이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고통은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의 속성입니다.
정작 죽임을 당하신 아드님의 희생이 새끼 양만 하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의 원을 물리치시고 그
로 하여금 치욕과 도살을 당하도록 내버리신 아버지의 희생은 송아지만큼 큰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래 우리네를 향한 하느님네의 사랑입니다.

두렵고 거룩하신 전능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면 하느님과 함께하셔서 무수한 조
화를 일으키시던 그 어린양께서 죄인들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셔서까지 ㄴ 인생을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ㄷ 그렇게 인생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ㄹ, 그 사랑이 계명의 첫째 강령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계명이나 그 계명만으로는 하늘 아래 인생이 하느님을 사랑할 재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땅에서 나, 땅에서 사는 저속한 인생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알 수 없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 더러 사랑이라는 것이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인생과 하느님 사이에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것이어서 인생은
그를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목숨
을 버려서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요, 이것이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인생의
성화(聖化)입니다.

ㄱ.마20:28 막10:45 ㄴ.마27:46 ㄷ.요3:16 ㄹ.요일4:10~11, 19

하느님께서 새기신 계명의 둘째 판도 첫째와 같이 자식이면 상대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쪽이 저 이웃
의 생명이나 이성이나 소유를 해하거나 탐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 굽게 증언하지 말라고 하신 바 ㄱ, 사람이 살
아가면서 제 쪽이 아닌 상대 쪽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ㄴ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제 몸도 사랑하고 저쪽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쪽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 같이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이어서 ㄷ 남을 우대하기 위하여
자기 쪽이 섬기는 쪽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자기 쪽을 위하는 것이 악입니다. 다 같은 핏줄이라도 하느님을 위한 희생의 여부로 선악이 나
뉘었습니다.
민족이나 종교로 선과 악이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쪽의 희생이 없이는 교인이 되어서 아무리 하느님께 예물과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느님과는 상관
이 없는 예식일 뿐입니다 ㄹ.
사람이 육식하지 아니하였던 때, 아벨은 하느님께 드릴 제물을 위하여 양 치는 자가 되어 살았으나 가인은 자
기가 먹으려고 지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느님께 드려서 예배하였습니다 ㅁ.

아벨은 생활 자체가 하느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나 가인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느님께 얼굴을 붉혔듯이 그는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였던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아우를 쳐 죽이고 하느님을 떠나 사람과 싸우며 살아가는 생존경쟁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어린양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이 곧 초자연의 선계(仙界)에 이르는 도통(道通)의 길입니다.

ㄱ. 출20:12~17 ㄴ. 막12:31 ㄷ. 롬13:9 ㄹ. 마7:12 ㄺ. 눅6:31 ㄻ. 마22:39 ㄼ. 사1:10~17 ㄽ. 창4:1~6 ㅁ. 창4:8 ㅂ. 창4:16 ㅅ. 마16:24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그가 모시는 주가 시인되나 하늘 아래서 스스로 자기 쪽이 의롭다고 여기는 만큼 하느님께서는 그를 불의하게 여기시어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ㄷ 누구든 자기에게 동조하고 자기 쪽을 떠받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천주를 모셔서 섬기는 자는 자기 쪽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느님만이 선하시고 ㄹ 옳으시며 ㅁ 참되실 뿐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는 그가 모시는 신주께서 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저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민족을 주신 것 같이 저 민족을 주신 것이어서 그에게는 이와 저가 다 같은 생명이고 다 같은 민족이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느님만의 권한일 뿐입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내 이쪽이 크고 높이 되기를 원하는 내 뜻이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내 이웃을 질시하고 침해합니다.

나를 위한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남을 침범하며 빼앗고 죽이지 않으면 눈물과 피를 흘리는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쪽 가족을 사랑하기에 이웃집과 원수가 되며 내 이쪽이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 하고 사랑하기에 이웃 나라와 타민족을 질시하고 적대시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이고 인간이 인류를 위한 인류의 기치를 높이 세우기에 하느님과 원수가 되어 결국은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ㄱ. 눅18:9, 14 ㄴ. 마9:12 막2:17 ㄷ. 눅5:31 ㄹ. 요8:37 ㅁ. 막10:18 ㄺ. 눅18:19 ㅂ. 시14:2~3, 53:2~3 ㅅ. 마9:13 ㄽ. 눅5:32 ㅁ. 요8:26 ㄷ. 롬3:4 계6:10 ㅂ. 요8:15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시고 ㄱ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ㄷ 사랑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는』 ㄹ 문안이 아니라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만나고 스치는 인연이면 형제와 똑같이 대하는 ㅁ 박애가 하느님의 계명임을 제삼 거듭하시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입니다. 내 이쪽을 위하여 남 저쪽을 희생시키는 것이 악이면 반대로 상대를 위해 내 이쪽을 희생하는 것이 선이요. 희생시키든 희생하든 그 희생이 없이는 무생물 같아서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상대 쪽이 나에게 박해하면 그보다 더 해를 입도록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더 더욱 헌신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서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 벗어 주고 오리를 요구하면 오리를 더하여 끝까지 희생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욕심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악도 욕구로 성공하고 선도 욕구로 성공합니다. 내 쪽을 위해서 이룩하려는 욕망이 있어야 상대를 굴복시켜서 그 야욕을 성취하는 것이면, 그 반대로 하느님을 위하여 내 이쪽을 헌신하여서 남김없이 희생하려는 욕심을 부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고통을 이겨내고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ㄱ.마5:39~42 ㄴ.마5:44~45 ㄷ.마5:46 ㄹ.마5:47 ㅁ.눅10:29~37 ㅂ.마5:10, 6:33 ㅅ.요일5:5, 계2:7, 11, 17, 26, 3:5, 12, 21, 21:7 ㅇ.창32:24~28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여겨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버릴 때는 냉정하게 버리고 취할 때는 열정으로 취하는 성의가 없으면 주로부터 버림 받는 자가 됩니다.

사랑은 헌신적 희생입니다. 자기 쪽을 꿰고 버려서야 하느님의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이 입으로 사랑한다고 떠드는 언변은 진실이 아닙니다.

내 이쪽을 지키려 하면 그만큼 악(惡)이 존재하나 내 이쪽이 희생하는 만큼 악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희생시키는 자는 번영하고 희생되는 자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저 사이를 심판하시는 천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편을 핍박하는 원수를 미워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어서 악만 남는 것이나,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를 거꾸로 사랑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됨으로써 결국은 악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희생이 큰 만큼 그 기도의 힘은 큰 것이어서 불가사의의 큰 조화를 일으킵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하는 희생을 하느님께서 열납(悅納)하시는 것이어서 그는 희생하는 만큼 거룩하여집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희생을 보여 주신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하느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그의 언행을 보고 인생이 하느님의 선하신 형상을 알 수 있게 하였고 그 아드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어서 인생은 그를 뒤따름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하늘의 몸을 입는 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ㄱ.계3:15~16 ㄴ.마10:39, 13:46, 19:29 ㄷ.눅12:33 ㄹ.베전3:9 ㅁ.마5:44 ㅂ.눅23:34 ㅅ.요1:18, 14:9 ㅆ.요1서4:12 ㅈ.출33:19 ㅊ.요10:32, 14:9 ㅋ.골1:15 ㅌ.고전15:49

그 영원한 생명은 상상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도 아닙니다. 천자께서 사람의 눈앞에 친히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 주시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지게 하셔서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에게까지 확증을 받으시고서 당신께서 오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느님께서 천하 모든 생명이 태어났다 죽고 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영생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시며 그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생을 천자께서 언약하신 것은 당신이 곧 아버지와 함께 사람을 지으신 하느님이시어서 천하 사람에게 언약하신 것이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실성한 사람의 소리밖에 간주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난 이는 아무도 없고 아무리 천세 만세를 외쳐도 죽고 마는 생명이 인생입니다.

그 생명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그 생명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보여 주셨고 그래서 인간이 그 영원한 생명을 목격한 것이나 그 목격보다 더욱 놀라운 내용은 그 고차원의 생명이 사람과 다른 외계의 생명이 아니라, 인생이 그 고차원의 생명으로 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받아 태어났건만 태어난 세상은 약육강식 하는 짐승의 세상이어서 악하고 독하지 않으면 결국 낙오되어 희생되고 말 뿐이면, 대관절 하느님의 정체는 무엇이오.

선한 이유로 희생된 아벨은 죽어 사라지고 악해서 동생을 쳐 죽인 오가인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권리의 표를 받아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으시는 일의 완성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천자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ㄱ. 요1서1:1~2 ㄴ. 요20:25~29 ㄷ. 요8:23 ㄹ. 요1:18 ㅁ. 마19:29 요3:15, 5:40, 10:28 ㅂ. 사9:6 요1:18, 14:9~10, 20:18 롬9:5 요1서5:20 ㅅ. 요7:20, 10:20 ㅇ. 창4:1~8 ㅈ. 창4:14~15 ㅊ. 창2:2 ㅋ. 요5:17

하느님의 일은 여섯째의 어둠이 ㄱ 지나 일곱째 날이 이르러, 지어진 온 세상이 밝아서야 다하는 것입니다. 내 이쪽을 뺀어 이웃을 쳐서 남의 영토를 빼앗고 그 땅을 식민지로 만들면 내 쪽에서는 영웅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워지는 제국이 인간의 나라이나 천자께서 그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셨으니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야 비로소 하느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반대로 내 이쪽을 희생하는 만큼 침노하여 정복되는 나라입니다.

내 이쪽을 바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속하여 물려받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 육신을 눌러 형제에게 비록 물 한 그릇을 떠 바치는 것까지도 희생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보답을 받고야 마는 것이나 사랑 중 더 큰 것이 없는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희생입니다.

가라사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쪽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남 저쪽을 치고 빼앗으며 죽여서 천하를 정복하는 것은 금수(禽獸)의 술법이면, 그와는 반대로 어린양께서 가신 길을 밟아 하느님과 그의 어린양을 위하여 내 이쪽을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은 도통의 선술(仙術)입니다.

이는 그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ㄱ. 요9:4 ㄴ. 마4:17 ㄷ. 마11:12 ㄹ. 마25:34 고전6:9~10 ㅁ. 마10:42 ㅂ. 요15:13~15 ㅅ. 창3:1 ㅇ. 마5:5 막10:30 눅18:30 행26:18 히9:15 ㅈ. 계5:10

임하옵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면 그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발언하실 리 없고 제자들에게도 그같이 증언하라고 명하실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영이 인생에 임하시어서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계신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천자께서 재림하시어 하느님의 만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살육을 당하시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느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메시아를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목숨을 다시 받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고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류(同類)로 거듭 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됩니다.

창세 이래 부활하셔서 신선이 되시고 그 신선이 되는 길을 가르치신 유일한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로부터 극동에 유불선(儒佛仙)이라는 말이 전하고 있어서 유가가 못하는 도술을 불가가 하고 불가가 못하는 도술을 선문이 한다고 하나, 정작 선도를 가르치는 교훈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생(先生)이라는 어휘가 먼저 태어났다는 뜻글이듯, 아무도 신선이 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신선이 되는 길을 가르칠 수 있으리오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선학이요, 그의 도가 선도(仙道)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 중 먼저 나신 아들들의 우두머리시오.

천지가 창조된 태초보다도 전에 홀로 탄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이 되시어 사망을 이기시고 더는 죽지 않는 신선의 몸으로 부활하셨으니 그를 따라 그와 같은 많은 열매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ㄱ. 마6:10, 12:28 눅11:2, 11:20 ㄴ. 마4:17 ㄷ. 마10:7 ㄹ. 마6:10 ㅁ. 단2:44, 7:13~14, 27 미4:7 눅1:33 요3:3
 ㅂ. 막8:35 눅17:33 요10:17 ㅅ. 눅24:39 요일1:1 ㅇ. 요일3:2 ㅈ. 요3:3 고전1:3 ㅊ. 요13~14 ㅋ. 롬8:29 계1:5
 ㅌ. 약1:18 계14:4

선(仙)은 사람 인(人) 변에 뫼 산(山)이 붙어 이루어진 글입니다. 육신이 없는 영과는 다른 존재가 신선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신령이시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언어로써 담화하시고 사람의 음식을 잡수시는 신령이시나 동방에서는 이를 일컬어 신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에 있는 동산을 일컬어 하느님의 낙원(樂園)이라고 하셨듯이,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쉬시던 감람원(橄欖園)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승천하시고 그 비상천(飛上天)하신 몸 그대로 악인들도 볼 수 있는 육신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어서 시온이라고도 하고 감람산(橄欖山)이라고도 하는 곳에 좌정하시고 친히 천하 만국을 심판하실 원군(元君)이십니다.

아담은 본시 들짐승같이 들에서 사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섯째 날 들짐승과 사람이 흠으로 지어졌고, 그 지어진 사람이 하느님의 생기를 받고 중생하여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도원의 동산에서 사는 신선이었음을 성서는 가르쳐주셨습니다.

천국이면서도 땅에 있는 나라이고 이 땅의 나라이면서도 천국이어서 하느님과 함께 거처하는 동산을 하느님의 성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이 장차 이루어질 실상의 표징이듯, 인류의 시조조차 먹지 못하고 낙원에서 쫓겨났던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영생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道)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그 원시로 회복되는 길이어서 구속(救贖)을 입는 길입니다. 어린양께서 몸값을 치르시고 되 찾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천자의 뒤를 따라 주와 같은 몸으로 거듭나, 하느님의 첫 열매가 되는 길입니다.

ㄱ. 눅24:39 ㄴ. 눅22:18, 24:42 ㄷ. 계2:7 ㄹ. 눅21:37 요8:1 ㅁ. 행1:12 ㅂ. 행1:11 ㅅ. 마24:30 계1:7 ㅇ. 사8:18, 24:23, 31:4 마5:35 계14:1 ㅈ. 스후14:4 ㅊ. 계1:5 ㅋ. 창2:7 ㅌ. 겔28:13~14 ㅍ. 창3:22 ㅎ. 창3:24 계2:7, 22:14
 ㅊ. 창3:24 계2:7, 22:19

주의 첫 열매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ㄱ 땅에서 왕 노릇 할 만왕(萬王)이요 만주(萬主)입니다.
상제께서는 목숨이라는 어휘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목숨을 바쳐서 천국을 증언하였고 당신
께서 재림하실 말세에도 천국을 당신의 말씀과 계시대로 증언하는 자들 역시 목숨을 아끼서는 일을 할 수 없
는 때가 되기도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더는 종이 아닙니다. 성자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는 ㄴ 성자 안에 그들이 있고 그들 안에 성자께
서 계셔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던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ㄷ 하느님의 아들들의 ㄹ 세상입니다.
그때에는 제자의 수 대로 열두 제국이 세워지고 각 제국에 일만 이천 군자(君子)들이 ㄹ 있어서 그들이 거처하
는 군(郡)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ㄹ 세상입니다.
자고로 도성덕립(道成德立)한 자를 일컬어 군자라고 하거니와 다가오는 나라의 임금이고 또 아들이어서 글
자 그대로 군자입니다.

계시에 해산하는 여자가 ㄹ 사람의 성별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아 고통받는 성도들을 가리키셨듯,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또한 사람의 성별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언하여 새 생명
으로 거듭나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에덴의 동편에 있는 한 길을 ㄱ 계시하셨습니다. 곧 영생에 ㄷ 이르는 길이요, 그 길로 생명나
무에 나아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계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이 한 길입니다. 내 이쪽을 일으키고 뺏아서 정복하는 욕망의 길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 쪽을 미워하고 ㄹ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어린양과 하나가 되는 ㄹ 길입니다.

ㄱ. 마4:5 ㄴ. 마19:28, 25:31 계5:10, 20:4~6, 22:5 ㄷ. 마10:21~23, 24:9 ㄹ. 요15:12~15 ㄴ. 요16:23 ㄷ. 요
15:7, 16 ㄹ. 마13:38 눅16:8 롬8:19 ㄹ. 계7:4~5 ㄷ. 계1:6, 5:10, 20:6 ㄹ. 요16:21 계12:2~5 ㄷ. 창3:22~24
ㄹ. 계22:14, 19 ㄷ. 눅14:26 ㄹ. 요17:11, 21~23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뒤따르는 자가 ㄱ 목자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는 인생이 하느
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망이 있는 것이고 ㄷ 그 죄 때문에 하느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자가 인간입니다. 그 종자가 누
구를 구원할 수 있으리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ㄷ. 하느님과 그의 아들, 곧 인
생을 지으신 하느님네만이 ㄷ 인생을 하느님께 속한 몸으로 구출하실 수 있고 성서는 이것을 일컬어 구속(救
贖)이라고 ㄹ 말씀하셨습니다.
원시인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시에 하느님의 낙원에서 왕이 되어 살았던 몸으로 회복되는 것입
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느님께서 뜻하셨던 본원으로 회복되어 ㄹ, 하느님과 함께 거하며 낙
원에서 놀고먹으며 사는 신선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미래에 가까이 다가오는 ㄹ 천국을 증언하신 것이고 그 세상에서 사는 신선의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ㄹ 그렇게 당신의 뒤를 따라 신선이 되라고 하신 것이 주의 언약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ㄷ
하신 언약이요, 그 언약을 믿는 자가 ㄷ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영혼으로 부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영혼으로 깨어나는 부활은 악한 일을 한 자도 하고 선한 일을 한 자도 하는, 모든 이의 부활
입니다. ㄷ. 그 같은 영혼에 하늘과 땅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ㄹ.

사람이 운명하였다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흔히 영혼

ㄱ.요10:1~4 ㄴ.요14:6 ㄷ.창2:17, 3:19 ㄹ.창3:23 ㅁ.마8:22 눅9:60 ㅂ.창1:26~27, 3:22 ㅅ.눅21:28 롬8:23
계14:3~4 ㅇ.행3:21 ㅈ.마4:17, 10:7 눅10:9 ㅊ.행1:3, 10:40 요일1:2 ㅋ.요6:40 ㅌ.요11:26 ㅍ.요5:29 ㅎ.계
20:11~12

이라고 말하는 혼백은 남는 것이고 그 혼백이 이생에서 행한 행위대로 ㄱ 하느님 앞에서 응보를 받습니다 ㄴ.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듯이 행실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서 선행하며 살았으면 그만큼 죽어서 좋은 처소로 갑니다.

선한 이는 생명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ㄷ 생명의 부활이 되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되어서 그가 행한 악행만큼 고통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었듯이, 먼저 육신이 사망하고 혼백마저 생명의 빛이 없는 어둠에 갇히는 ㄹ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이 영혼에 관한 것은 이차 문제입니다. 문제는, 부활에 첫 열매가 되는 첫째 부활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원 중에도 육체가 환난에서 살아남는 구원이 ㅁ 있고 부활 중에도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 땅에서 천년을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는 첫째 부활이 ㅂ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ㅅ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또 마지막 날 살리시겠다고 언약하신 ㅇ 구속(救贖)이고 ㅈ 부활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폐하시려고 천자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가 아니라, 이 지상의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요.

승천이 아니라 땅에 강세하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ㅋ 만국을 친히 다스리심으로서 ㅌ 이 세상이 신천지가 ㅍ 됩니다.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설이 있을 뿐입니다.

ㄱ.마7:23 요5:29 계20:12~14 ㄴ.계20:14 ㄷ.계3:5, 13:8, 20:15 ㄹ.마8:12, 25:30, 계20:14 ㅁ.마24:22 막
13:20 눅9:24 롬9:27~29 계7:14 ㅂ.약1:18 계14:4, 20:4~6 ㅅ.베전1:5 ㅇ.요6:40, 44 ㅈ.눅21:28 롬8:23 엡
4:30 계14:3~4 ㅊ.마19:28 계21:5 ㅋ.마26:29 계19:15 ㅌ.베후3:13 계21:1~2 ㅍ.요14:23 계21:1~2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누추한 신분으로 ㄱ 보내셔서 더없는 치욕과 저주를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初臨)이나, 재림은 반대로 지극히 높으신 영광 중에 ㄴ 오셔서 권세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그 만국을 친히 다스리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유일하신 아드님께서 육신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선하신 참모습을 인생에 드러내 주셨으니 ㄷ,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ㄹ.

진리의 신을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ㅁ.

성자를 생산하신 그리스도의 모친 같이 ㅂ 인생도 어린양의 희생으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는 받아지지 아니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종이어서야 받아지는 영입니다.

인생이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따르는 그의 나중 몸이 되어서, 임의 여자입니다 ㅅ. 어린양의 여자는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는 날, 초자연의 생명을 해산합니다 ㅇ.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인생도 하늘에 속한 자의 거룩한 형상을 입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변화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고 변화한 생명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구로 하면서 남자를 낳는 장면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실의 장면입니다. 동방에서 양과 음을 뒤집어 음양이라고 말하며 그 음양을 일컬어서 역(易)이라고도 하였습니다.

ㄱ.사53:1~3 ㄴ.마16:27, 24:30 ㄷ.요1:18, 6:46, 14:9 ㄹ.요1:17 ㅁ.요14:17 행8:12~17 롬8:9 ㅂ.눅1:35 ㅅ.요3:29 마8:15, 25:1 계19:7, 21:9 ㅇ.계12:5 ㅈ.마5:48 고전15:49 ㅊ.마 5:43~48 요14:21

역이라는 말이 맞바꾸는 의미의 뒤바뀐 역(易)입니다. 속전 바칠 속(贖)자의 구속(救贖)이나 속량(贖良)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위편삼절(韋編三絕)이 되도록 공자가 역을 공부하여 통예(通禮) 하였는데 그 공자가 생생지위역(生生之謂易: 태어나고 태어남을 역이라고 이른다)이라고 증언하였듯이 양에서 음이 나는 선천이 있고 뒤집혀서 음에서 양이 나는 후천이 있어서 날 생을 두 번 써서 거듭나는 생명을 언급함으로써 무극의 도를 형용하였고 후생가의(後生可畏)라 하여서 그 거듭난 후생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일컫는 공자까지도 가히 두려다(敬畏)고 증언한 존재가 바로 거듭 태어나는 나중의 생명인바, 하나님의 아들들을 형용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의 인생을 위하여 당신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ㄱ 하늘 아래 인생으로서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하느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몸임을 하느님께서 아시는 것이어서 하느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주신 계명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 한 길뿐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을 사랑하여서 그와 하나가 되는 길만이 인생이 흠과 티가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버지께서 지으신 땅을 상속받고 새 세상을 다스릴 거룩한 군자(君子)가 되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온전하게 된 아들이어서 ㄴ 도통 군자(道通君子)입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ㄴ 통과하여서 그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신선이 되는 동방의 길입니다. 인류의 시조로부터 누천년이 흐르면서 내려오던 하늘은 묵은 하늘이 되어 지나가고 비로소 동방에서 새 하늘의 동이 트고 있습니다.

ㄱ.요3:16 ㄴ.창3:24 계22:14 ㄷ.계7:2, 16:12